

美 언론 “대만 총통 선거는 ‘딸기세대’의 반란”

“여당 반발 정세가 승리 주원인”

양안 관계·주택 안정 등 과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2030 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결집한 ‘딸기세대’라고 평했다.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이른바 딸기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층의 반격 덕분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회적 압력이나 힘든 일에 견디지 못하고 딸기처럼 쉽게 상처받는다든가 세대라는 뜻이다.

지난 16일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당이 참패한 것은 딸기세대가 가진 경제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 그리고 중국의 영토 욕심에 대한 적대감이 기성 권력에 대한



Andrew Browne The Wall Street Journal
Taiwan's 'Strawberry Generation' Comes of Age

“대만 딸기 세대의 도래”라는 제목의 보도.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저항으로 결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미 2년 전 ‘해바라기 운동’으로 저항정신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3월 집권 국민당이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대학생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손에 들고 시위를 벌여 입법원(국회)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당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이끈

? 딸기세대 ‘차오메이’(婁+每·초매) 세대란 지난 1981년 이후 태어난 대만의 청년들을 가리켜 나약하고, 무관심하고, 자기만족만 추구한다며 비하하는 의미로 붙인 용어다.

국민당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자본가에 영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WSJ는 전했다.

대만의 신입사원 초봉이 2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들어 청년층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반중(反中) 정서가 강한 타이난(台南)에 거주하는 소피 수는 2년 전 해바라기 운동에 참여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단순하다”며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언어와 글자, 문화는 다르다”며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완전한 대

만인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첫 여성 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은 이 같은 청년층의 분노에 편승해 권좌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차이 주석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서에 공감대를 가진 선거전략가를 고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국가적 경제부흥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차이 정부는 친중 일본도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을 다각화하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며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 주석은 집권 후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해치지 않으면서 지지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차이 주석이 독립주의자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선거 결과와 지지자들의 독립 열망에 중국 정부가 불편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6 노인 재상 공손홍

공손홍(公孫弘, BC 200-BC 121)은 산동성 설현 출신으로 무제때의 정치인이다. 나이 60이 넘어 출사하여 무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어사대부를 거쳐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섰다.

그는 젊어서 설현의 옥리 생활을 했으나 죄를 지어 관직에서 쫓겨나 돼지를 키우며 궁궁하게 살아갔다. 계모를 정성껏 모셨으며 40이 지나 학문에 뜻을 두어 공양춘추와 잡가의 학문을 공부하였다. 뒤늦게 그에게 관운이 찾아든 것은 무제가 새롭게 실시한 인재등용 방식 덕분이었다.

사기에는 “공손홍은 그 행함이 을 바르긴 했으나 때를 잘 낚았기에 출세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BC 140년 무제는 전국에 현량과 문학을 하는 선비를 공개 선발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는 그때 선발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어 박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60이었다. 박사로 임명된지 얼마

둘째로 그는 늘 황제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철저히 따랐다. 이 점에서 정치적 라이벌인 강직한 급암과 크게 대조된다. 급암은 늘 고지식하게 황제에게 치국대책을 건의했다. 급암은 공손홍의 가식적 행동을 참지 못하고 황제에게 “공손홍은 우리와 상의할 때

는 다른 대신들의 뜻에 동의했다. 그러나 조정에 나오면 태도를 바꾼다. 매우 불충한 행동”이라며 고지질했다. 노련한 그는 “소신을 아는 사람은 소신을 충성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소신을 모르는 사람은 소신이 불충하다고 할 것이다”며 비판을 피하게 했다. 급암은 황제의 신임을 잃어 지방으로 좌천되고 공손홍은 무제의 신뢰를 더욱 얻게 되었다. 이러한 처신은 당연히 유학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동중서는 그를 아첨꾼이라고 경멸하였다.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지 말라는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고사는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셋째로 그는 매우 검소한 삶을 영위

후학 양성으로 한나라 유학 발전 기여

안도 흉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조정에 돌아와 올린 보고서가 무제의 마음에 들지 않아 병을 핑계로 낙하하였다.

6년 뒤인 BC 130년 무제는 다시 “현량 문학의 선비를 추천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는 고향에서 다시 천거될 수도 장안에서 공개시험에 참가하게 됐다. 이때 무제는 직접 시험지를 채점하여 그의 답안을 1등으로 뽑았다. 합격자들을 진견하는 자리에서 무제는 용모가 단정한 그가 마음에 들어 바로 박사로 발탁하였다.

한서에 “공손홍, 때를 잘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가”라 기술돼 있듯이 진실로 행운의 인간이었다. 이후 학문이 없이 승진의 사다리를 밟아 고위직으로 영전하게 된다.

그가 뒤늦게 관직에 들어가 출세를 거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무제가 비록 유학정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폈지만 황제의 절대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독재자임을 간파했다. 따라서 내법외유(內法外柔)의 치국책을 황제에게 건의했다. 밖으로는 유교를 장려하지만 안으로는 법가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황제의 뜻을 헤아린 것이다.

했다. 사기는 “그는 삼베로 만든 침구를 쓰고 밥을 먹을 때는 고기반찬은 한가지 이상 놓지 못하게 했으며 계모가 죽은 후에는 3년상을 지냈다”며 선비로서의 절박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재상의 지위에 올랐어도 옛날 돼지를 키우던 시절의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한 것이다.

결암의 자세 덕에 승상이 되고 평정 후에 봉해졌다. 한나라는 개국 이후 오직 제후만이 승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승상이 된 후 제후가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박사 밑에 제자 50명을 두도록 건의하여 유학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자신의 불록을 아낌없이 친구들과 후배들을 지원하는데 쏟아 부었다. 그래서 ‘집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명대의 학자 이탁오는 그를 개국공신인 소하와 함께 결주대신(結主大臣)으로 평가했다. 군주와 하나가 되어 충실하게 그 뜻을 받들어 정치에 임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무제 사대는 재상의 수난기였다. 12명의 재상 중 세사람이 자살했고 세사람이 처형되었다. 오직 그만이 80세의 천수를 누리며 승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베 또 오리발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련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남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정한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쿄는 이제 첫 눈 18일(현지시간) 울겨울 첫 눈이 내린 일본 도쿄에서 출근길의 시민들과 차량이 눈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이날 적설량은 6cm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란 제재 해제 하루만에...美, 탄도미사일 신규 제재

북한 미사일 협력 3명 포함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등 11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규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본부를 둔 마부루카 무역과 이 기업의 소유주인 후세인 포나그쉬벤드로,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의 중국 및 UAE 자회사와 더불어 이란인 5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새로 제재대상에 오른 이란인 5명 중 3명은 북한과 미사일 개발을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

OFAC에 따르면 2005년 특별제재대상에 지정된 이란의 군수기업 샤히드 헤마드 산업그룹(SHIG) 임원 사예드 자바드 무사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직원들과 직접 협력해왔다.

무사비가 속한 SHIG는 북한 KOMID가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SLV)의 지상실험에 쓰이는 밸브, 전자부품, 계측장치를 이란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SHIG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업(AIO)의 자회사이다.

무사비와 함께 SHIG의 다른 임원인 누신과 파라히는 80급 로켓 추진체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평양으로 직접 건너가 부품도입 계약 협상을 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서방의 대(對)이란제재 해제 및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 석방 조치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항목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대출금리	3.8~5.5%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4.0~5.5%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5.5~6.5% (혹은 7.0%)
중도	중도 무	중도 무	중도 무
취급	취급 무	취급 무	취급 무
한도약정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